

# 아이비리그 못지 않은 'America's 25 New Elite 'Ivies'



▲ Boston College Gasson Hall, 사진=shutterstock

드, 시카고 대학, MIT, 칼텍과 같은 학문적으로 매우 뛰어난 대학들과 함께 아이비리그의 8개 학교였다. 그리고 윌리엄스, 암허스트, 미들베리, 스와스모어, 웨슬리언과 같은 소규모 리버럴 아츠 칼리지들은 작고 더 친밀한 캠퍼스를 선호하는 상위권 학생들에게 선택의 대상이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대학 선정에서 대학의 명성을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아이비리그 대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나 아이비리그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의 극히 제한돼 있다. 가능성이 낮다면 다른 선택도 해야 한다.

미국 동부 8개 명문 사립대학인 아이비리그 8개 대학은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컬럼비아, 유젠, 다트머스, 브라운, 그리고 코넬 대학이다. 원래 스포츠 리그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엘리트 대학'의 대명사가 됐다. 해마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고배를 마신다. 보통 매년 40여만명이 지원을 하고 2만 1000여명이 합격을 한다. 합격률은 5% 내외다. 이렇게 되다 보니 불합격생들은 할 수 없이 아이비리그 그 다음 그룹의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이런 현상에 착안을 해서 유명 주간지 '뉴스위크'가 2006년 8월 20일에 'America's 25 New Elite 'Ivies' 라는 내용으로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대학들을 소개한다.

뉴스위크는 이렇게 설명을 한다. "새로운 엘리트 대학의 출현은 수요에 부응하는 전형적인 공급 사레라고 할 수 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엘리트 학교들은 분명하게 정의된 그룹이었다: 스탠포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학 진학률이 급증했고, 세계적 수준의 학교도 많아졌다. 우수한 교육에 대한 수요로 인해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크고 작은 명문 대학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뉴스위크는 이 대학을 선정하기 위해 많은 대학의 교직원, 학생, 동문들을 인터뷰했다. 이렇게 해서 선정된 대학이 25개다.

### ■ 연구중심 종합대학(16개)

- ▶ Boston College ▶ Carnegie Mellon ▶ Emory University ▶ University of Michigan ▶ NYU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 University of Notre Dame ▶ Olin College of Engineering ▶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 Rice University ▶ University of Rochester ▶ Tufts University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Vanderbilt University ▶ University of Virginia ▶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 ■ 학부 중심 리버럴 아츠 칼리지(9개)

- ▶ Bowdoin College ▶ the five Claremont Colleges ▶ Colby College ▶ Colgate University ▶ Davidson College ▶ Kenyon College ▶ Macalester College ▶ Reed College ▶ Skidmore College

# 대학들이 자주 제시하는 개별 에세이 주제



대학 입시 시즌이 돌아왔다. 지금쯤 많은 학생들은 이제 곧 열리는 2023-24학년도 미국 대학 입시 원서(Common app)를 마추기 전 이미 3월에 주어진 에세이 프롬프트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곧 대학들의 개별 에세이 주제도 나온다. 에세이 주제 가운데 잘 제시되는 주제 몇 가지를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이 소개했다.

이 에세이는 자신이 어떤 주제에 대해 가장 열정적으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이다. 또한, 이 에세이는 자신의 관심사와 열정을 보여줄 수 있다.

### ■ 내가 꿈꾸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이 에세이는 자신이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 그리고 그 미래를 이루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이다. 또한, 이 에세이는 자신의 목표와 야망을 보여줄 수 있다.

### ■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이 에세이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이다. 또한, 이 에세이는 자신의 리더십과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에세이 아이디어는 단지 몇 가지 예일 뿐이다. 수험생의 개성과 경험에 맞는 에세이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 하나 쉽게 쓸 수 있는 주제는 없다. 하나하나 깊이 생각을 하고 써야 한다.

### ■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나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이 에세이는 수험생 자신이 어떤 책이나 영화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책이나 영화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이다. 또한, 이 에세이는 자신의 독서 취향과 관심사를 보여줄 수 있다.

### ■ 내가 가장 힘든 도전을 극복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이 에세이는 자신이 어떤 도전을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이다. 또한, 이 에세이는 자신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보여줄 수 있다.

### ■ 내가 가장 열정적으로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월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 - 29점	30점 - 39점
매월 프리미엄	\$506	\$278

###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3년 현재 164.90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를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 Extra Help 자격

Income & Resources	Single	Couple
Monthly Income	\$1,822	\$2,465
Asset Limit	\$16,660	\$33,240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소셜연금, Extra Help,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상담 및 신청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 (김예자)  
Lic# 0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6400643@gmail.com  
LEE JIHOON (이지훈)  
Lic # 4276029  
T.714.872.9377